

## ‘원자력 메카’ 로카쇼무라 현장

북한의 영변지역에 핵처리시설이 건설돼 연 50kg 정도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여 미국 등 여러나라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최근에는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까지 얘기되어 긴장이 감돌기까지 한다.

한편 지난 8일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핵연료 재처리 및 핵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비핵선언을 내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제2차세계대전을 일으켰다가 2개의 원자폭탄을 맞고 항복한 일본에 최근 들어 대규모의 핵시설이 건설·가동되고 있어 주목된다. 아오모리현 최북단에 있는 로카쇼무라에 핵농축시설이 86년에 착공되어 이미 완공됐고 현재 건설중인 재처리시설은 98년 완공돼 가동될 예정이다. 지난 9월초 이곳을 방문한 필자는 로카쇼무라의 핵시설이 웅변하는 일본의 ‘플루토늄 계획’을

데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일본은 2004년까지 약 70t의 플루토늄을 생산하게 되는데 약 55t을 고속중수로 등에 사용할 계획이고 나머지 15t은 비축할 예정이다. 이 정도의 비축량은 수천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또하나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실은 로카쇼무라에 건설·가동중인 핵농축시설과 재처리



이 해 찬

기 감축을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접국인 일본에 이런 거대한 핵시설이 집중 건설되어 일본이 동북아의 핵 주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제까지 그 사실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이런 사태진전과 달리 원폭의 유일한 피해 국민인 일본인들은 이에 대해 정서적으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지 않다. 도쿄 등지에 있는 소규모 반핵운동단체들은 로카쇼무라의 핵시설에 대해 완강한 반대운동을 벌여왔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러나 필자가 로카쇼무라 현지에서 보고 들은 바로는 현지 주민의 반대가 그리 ‘강력’하지도 ‘절박’하지도 않았다. 89년 실시된 로카쇼무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핵시설 건설을 강력히 반대한 후보는 불과 341표밖에 얻지 못한 반면 핵시설 건설을 추진한 후보는 3,514표를 얻어 2위를, 우선적인 건설 동결에 안정성 확보와 지역개발을 추가사항으로 요구한 후보가 3,820표를 얻어 당선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일본 정부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 그

## 핵공장 주변 군사시설 ‘충격’

### 아시아지역 공동감시체제 시급하다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해마다 8백t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게 될 이 시설이 가동되면 일본은 해마다 8천kg의 플루토늄을 자체 생산해 보유하게 된다. 산업용 핵시설은 언제든지 곧바로 군사시설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일본은 ‘핵무장’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갖추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일본 나카소네 수상이 86년 동북아의 냉전상황이 아직도 엄존하던 보수적 분위기에서 대소련 방위차원에서 일본의 핵무장 능력을 승인했다는 점이다. 즉 일본은 그동안 자기나라의 사용후핵연료를 프랑스와 영국에 위탁하여 1t에 1백만달러의 비용을 치르며 재처리해왔는데 미국이 미·일원자력협정을 개정해줌으로써 일본이 스스로 플루토늄을 보유·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른바 ‘포괄적 사전동의방식’으로 협정을 개정함으로써 미국이 한번만 동의하면 30년 동안 일본이 스스로 플루토늄을 확보·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일본은 자체 재처리시설을 갖게 되고 나아가 고속중수로와 신형전환로를 개발하는

시설만이 아니라 그 지역 일대에 들어서 있는 그밖의 군사시설과 핵시설이다. 로카쇼무라 북쪽에 있는 히가시도리무라 지방에는 약 20기의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고, 그 인근에는 핵탄도시험장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아오모리현 최북단인 무쓰에는 원자력선의 모항이 들어서 있고 그 옆인 오마자키에는 플루토늄을 사용하는 신형전환로를 건설할 터가 확보돼 있다. 그리고 무쓰만에는 대소군사기지인 해상자위대 기지가 있다.

또한 로카쇼무라 바로 남쪽인 미자와에는 핵무기를 탑재한 F-16 전투기부대가 있는 광활한 미공군기지가 있고 그 옆에는 일본 최대의 국가석유 비축기지가 들어서 있다. 즉 시모키타반도 일대에 주로 핵시설과 핵을 사용하는 군사시설이 배치돼 있다. 지난 86년 12월 총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지역을 방문했던 나카소네 수상은 당시 이 지역을 가리켜 ‘원자력의 메카’로 발전할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최근 들어 미·소를 중심으로 냉전체제가 해소돼가고 부시와 고르바초프가 경쟁하듯이 전술 핵무기의 철수를 비롯한 핵무

리고 신칸센을 현지까지 연장 해주는 지역개발 약속이 주민에게 작용한 점도 있지만, 그다는 현지 주민이 국가사업에 그저 따르는 국가주의적 속성이 작용하고 있다고 추측된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제2차세계대전에서 원폭 투하로 패한 일본 국민이 핵시설을 갖춤으로써 스스로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국가주의적 성향이 깔려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

한반도에서는 비핵이 추진되고 있는데, 인접국인 일본에서는 거꾸로 핵시설 건설이 본격화됨으로써 아시아에서 군사지형이 바뀌고 있음은 틀림없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우리 사회 일부에서도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그런 견해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보다 큰 민족적 과제인 통일에 저해요인이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본 핵시설이 군사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아시아 여러 나라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시아 여러 나라의 공동감시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국회의원〉

91.11.23